

One
Dance

일무

One Dance 일무

초연

2022년 5월 19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Premiered at

Sejong Grand Theater, Seoul, KOREA on MAY 19, 2022

제작

세종문화회관

Production

Sejon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세종문화회관 <일무>가 처음 관객들을 만난 지 4년차가 되었습니다.

2022년 초연 때가 생각합니다. <일무>는 세종문화회관 사장으로 부임하며 제작극장의 기치를 내걸고 의욕적으로 제작한 첫 번째 작품이었습니다. 정구호 연출님을 모시고 당시 서울시무용단장이었던 정혜진 안무가님과 젊은 현대무용안무가 김성훈, 김재덕이 최고의 무대, 최고의 작품을 만들고자 합심하여 탄생한 제작극장 세종의 1호 작품입니다.

2023년 재연부터 <일무>는 매진 공연이라는 꼬리표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뉴욕 링컨센터 공연의 전 회차 전석매진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은 제게도 특별한 기억입니다. 미국과 뉴욕커들에게 예술적 자부심의 상징인 링컨센터에서 느꼈던 기립박수의 감동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벅차옵니다.

이제 <일무>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K-콘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도 공연 전 전석 매진을 기록하였고, 특별히 '경제학계 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경제학자대회(ESWC)의 공식문화행사로 선정되어 세계의 경제석학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연콘텐츠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공연계 최초로 미국 출신 방송인 겸 기업가 마크 테토(Mark Tetto)님을 '브랜드 앰배서더'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올해는 서울 공연 후 강릉과 대구에서도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내 다른 지역의 관객들과도 직접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종묘제례악에서 시작한 <일무>는 이제 '우리가 만들고, 세계가 즐기는' 작품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과 아시아, 전 세계 무대에 오를 내일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정말 무더운 날씨 속에 올해도 열심히 작품을 준비해주신 윤혜정 단장님을 비롯한 서울시무용단 출연진과 정구호 연출님, 정혜진 안무가님, 김성훈 안무가님을 포함한 모든 창제작진 분들께 깊은 감사와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세종문화회관 사장 안호상





연출, 무대, 의상, 조명, 영상 디자인
DIRECTING, STAGE, COSTUME, LIGHTING, VIDEO DESIGN

정구호 KUHO JUNG

정구호는 그래픽 디자인, 영화의상 디자인, 공간 디자인, 무대예술 디자인, 전통무용, 현대무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다. 2012년 국립발레단 50주년 기념 작품인 <포이즈>를 통해 무용과 인연을 맺고 국립 무용단의 여러 작품을 연출했다. 정구호는 전통과 현대, 춤과 음악의 경계를 허물고 세련되고 활기찬 무대를 선보인 작품으로 연속적인 성공을 거뒀고, 한국 무용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국립 오페라단 <동백꽃아가씨>, 전복도립국악단 <모악정서> 등을 연출하며 공연 연출가로서도 입지를 공고히 했다. 제16회 공예트렌드페어 총감독, 리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지냈다.

주요 작품

<단심>, <나비부인>, <그리멘토>, <향연>, <목향>, <산조>, <김주원의 사군자-생의 계절>, <모악정서>, <동백꽃아가씨>, <춘상>, <단뿔>, <경합-The Battle>, <포이즈> 외

Kuho Jung is a creative director actively involved in graphic design, film costume design, spatial design, stage art design, traditional dance, and contemporary dance. Through his work on *Poise*, a commemorative piece for the 5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National Ballet in 2012, Jung established a connection with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and began directing performances for the National Dance Company of Korea. He achieved consecutive successes with productions that showcased sophisticated, vibrant stages that simultaneously broke down boundaries between tradition and modernity, dance and music, and presented a new direction for the Korean dance scene. He also directed *La Traviata* for the Korea National Opera, *Moakjeongseo* for the Jeollabuk-do Gugak Center Orchestra, and *The Four Seasons of Sa Gun Ja*, among others. Jung's work on *One Dance* for the Seoul Metropolitan Dance Theater (SMDT) under the Sejon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proved that his talents extend beyond the realm of fashion—where he worked as executive director of Samsung's fashion division and vice president of FILA Korea, among other positions. Jung also served as the executive director of Seoul Fashion Week and Craft Trend Fair and he has received awards both as art director and for costume design at numerous film festivals and awards ceremonies.

Selected Works

Pure Heart, Poise, Altar, The Scent of Ink, The Banquet, When Spring Comes, Sanjo, La Traviata, Moakjeongseo, The Four Seasons of Sa Gun Ja, The Battle, Madama Butterfly



안무
CHOREOGRAPHY

정혜진 HYEJIN JEONG

정혜진은 한국무용가이자 안무가로 서울시무용단 단장, 서울예술단 예술감독, 대한민국무용대상 총감독, 서울무용제 총감독, 한국무용협회의 이사로 활동했다. 전통뿐만 아니라 극작품 등 다양한 공연을 안무하는 그의 다재다능함은 대중의 문화예술 향유와 한국무용 발전에 많은 부분 기여하고 있다. 현재 최현춘원 회장이자 한국현대춤협회 부회장이다.

주요 작품

<단심>, <엘리자베스 기억>, <늦-N.O.T>, <감괘>, <동무동락-웨딩보감>, <동무동락-허행초>, <조선 삼총사>, <극장 앞 독립군>, <가문>, <신맛이>, <무애>, <가무극 큰 선비 조광조>, <그 달>, <당신은 누구시길래> 외

Hyejin Jeong, the former artistic director of Seoul Metropolitan Dance Theater (SMDT) at Sejon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is a prominent choreographer and dancer in Korea. She has previously served as the artistic director of Seoul Performing Arts Company, the director of the Korean Dance Awards, the director of Seoul Dance Festival, and a board member of the Korean Dance Association. Currently, she is also the president of Choihyun Dance Company and the vice president of the Korean Modern Dance Association. Her versatility in seamlessly transitioning from traditional dance to modern adaptations has contributed to the public's enjoyment of cultural arts and the advancement of the Korean dance industry. Some of her most notable works include *Shooting the Moon: Yoon Dong-ju*, *Lost Face 1895*, and *Deep-rooted Tree*. Her representative choreography works include *The Palace: Jang Nok-su-jeon*, *Dandelion Flower*, as well as *Muae*, for which she received the Grand Prize and Choreography Award at the Seoul Dance Festival.

Selected Works

Pure Heart, Muae, The Palace: Jang Nok-su-jeon, No One There, DongmuDongrak-Heohangcho, The Topping, DongmuDongrak-Wedding Handbook, Wonderful Dance Pharmacy, Gam-Gwae



안무

CHOREOGRAPHY

김성훈 SUNG HOON KIM

김성훈은 2007년 베니스 비엔날레에 초청되며 국제 무대로 발을 내디뎠다. 뉴욕 아시아문화위원회Asian Cultural Council로부터 우수 예술가로 선정된 후 록펠러 재단의 지원을 받아 뉴욕에서 다양한 예술가들과 협업하며 국제적인 안무가로 성장했다. LDP무용단·아크람 칸 컴퍼니 등 국내외 최고의 무용단에서 활약했으며 서울시무용단·대전시립무용단·인천시립무용단과 함께 안무를 개발하는 한편, 영화·뮤지컬·연극 장르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주목받고 있다.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실기과에서 강의하고 있다.

주요 작품

<엘리자베스 기덕>, <그리멘토>, <Position of body>, <Black comed>, <Carcara>, <흙친관계>, <우리는 영웅을 믿지 않는다>, <No film>, <Green eye>, <Pool>, <김주원의 사군자-생의 계절>, <MINDSEEKER>, <조동>, 2012 런던 올림픽 개막 공연,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폐막 공연 외

Sung Hoon Kim was invited to the Venice Biennale in 2007 as the youngest artist to perform Position of Body and soon took off for international stages. Since entering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with a scholarship, he has been involved with companies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including Laboratory Dance Project (LDP) and Akram Khan Company.

After being selected as an "excellent artist" by the Asian Cultural Council in New York, Kim stayed in New York to collaborate with various artists and grow as an international choreographer with the support of the Rockefeller Foundation. He has actively worked in the fields of film, musicals, and plays, while also developing choreography with Seoul Metropolitan Dance Theater, Daejeon Metropolitan Dance Theater, and Incheon Metropolitan City Dance Theatre.

Selected Works

Position of Body, Musang, Black Comedy, Disconnection, Gam-Gwae, JODONG, No Film, Pool, Torch, Four Musketeers-Survival Season, London 2012 Summer Olympic Games Opening Ceremony,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 Games Closing Ceremony



안무, 음악

CHOREOGRAPHY, MUSIC

김재덕 JAEDUK KIM

서사 구조에서 벗어나 움직임 중심의 표현을 추구하는 안무가 김재덕은 현재 모던테이블 현대무용단의 예술감독이자 싱가포르 T.H.E 댄스 컴퍼니의 해외상임안무가다. 자신의 움직임 방식과 한국 전통 악기를 매치하기 위해 직접 음악을 작곡하며, 음악과 춤의 조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뉴질랜드무용단·브라질 상파울루시티발레단·살바도르주립무용단·아르헨티나 국립현대무용단·스위스 루체른시립무용단·홍콩현대무용단·스위스 댄서스 포 더 월드 등 다양한 무용단과 프로젝트에 안무가로 초대됐으며, 파리 국립무용센터CND가 주최하는 'Camping ete'에 한국 대표 감독관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2019년에는 빈의 국제무용축제인 임펠스탄츠에 초청받아 워크숍 강연을 했고, 2020년에는 안무작 <속도>를 유럽에서 가장 큰 무용 플랫폼 중 하나인 독일 탄츠메세에서 공식 쇼케이스로 선보였다.

주요 작품

<Sigan>, <Nak:Ta>, <Tension Espartial>, <Jangdan>, <MR.Sign>, <HA-KI>, <시나위>, <다크니스 폼바> 외

Jaeduk Kim, a choreographer who pursues movement-centered expression deviating from a narrative structure, is currently the Artistic Director of Modern Table Dance Company and a foreign residency choreographer for T.H.E Dance Company in Singapore. Using Korean traditional instruments, he composes music that matches his approach to movement and presents a synesthetic performance on stage through the harmony of music and dance. Jaeduk Kim participated as Korea's representative supervisor in Camping été hosted by the Centre National de la Danse in Paris and has been invited to choreograph and compose for a wide variety of companies and projects, including the New Zealand Dance Company, Balé da Cidade de São Paulo in Brazil, BaléTeatro Castro Alves in Salvador, Compañía Nacional de Danza Contemporanea in Argentina, Dancers for the World in Switzerland, T.H.E Dance Company in Singapore, Hong Kong City Contemporary Dance Company, and many others. In 2019, Jaeduk Kim was invited to give a workshop lecture at Impulse Tanz, the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in Vienna, and in 2020, his work Sok-do was selected and introduced as an official showcase by Tanzmesse in Germany, one of the largest dance platforms in Europe.

Selected Works

Sigan, Nak : Ta, LUBDUB, Força Fluida, Tension Espacial, HA-KI, Mr. Sign, Jangdan

ACT 1

일무연구 佾舞研究 STUDY OF ILMU

- 1장 전폐희문지무
- 2장 전폐희문 응용
- 3장 정대업지무
- 4장 정대업 응용

Scene 1 : The Dance of Jeonpyehemun (Munmu)

Scene 2 : The Variation of Jeonpyehemun

Scene 3 : The Dance of Jeongdaeeop (Mumu)

Scene 4 : The Variation of Jeongdaeeop

종묘나 문묘 제향 때 열을 맞추어 추는 일무는 조선 시대 역대 임금의 문덕 文德을 칭송하며 보태평保太平 음악에 맞추어 추는 문관의 춤 '전폐희문지무'와 역대 임금의 무공武功을 칭송하며 정대업定大業 음악에 맞추어 추는 무관의 춤 '정대업지무'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문무文舞'와 '무무武舞'로 불린다. 1장과 3장에서는 전통 문무와 무무를, 2장과 4장에서는 전통 안무와 대형을 새롭게 재해석해 대형의 변화와 함께 현대적으로 안무와 음악을 응용해 발전시킨 문무와 무무의 '응용'을 선보인다.

"Ilmu" is performed in rows as part of Jongmyo or Munmyo ceremony (a ritual performed at royal shrines). It consists of two main segments: The Dance of Jeonpyehemun, the dance of the civil servants performed to the musical suite of Botaepyeong in honor of the civil achievements made by the kings of the Joseon Dynasty, and The Dance of Jeongdaeeop, the dance of the military servants performed to the musical suite of Jeongdaeeop in honor of the kings' martial achievements. These segments are commonly referred to as Munmu and Mumu, respectively. Scenes 1 and 3 feature traditional Munmu and Mumu, while Scenes 2 and 4 reinterpret traditional choreographies and formations to present contemporary takes on the dances and music

ACT 2

궁중무연구 宮中舞研究

STUDY OF GUNGJUNG MU

1장 춘앵무

2장 춘앵무 응용

Scene 1 : Chunaengmu

Scene 2 : The Variation of Chunaengmu

조선 순조 때 창작된 춘앵전(춘앵무)은 효명세자가 순원왕후의 생신을 기념해 만든 궁중무용(정재)의 하나다. 버드나무 가지에서 맑게 지저귀는 피꼬리의 모습을 보고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진연(궁중연회)때 한 사람의 무기舞妓가 화문석 하나만 깔고 그 위에서 추는 지극히 절제된 춤으로, 움직임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1장에서는 궁중무의 꽃이자 일인무一人舞의 원형인 춘앵전을 연구하고 대형 군무로 확장한다. 2장 응용에서는 현대적인 음악에 전통 안무를 새롭게 재해석해 화려한 춤사위와 대형 변화,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준다.

Chunaengmu, a court dance, was created during the reign of King Sunjo of the Joseon Dynasty. It was developed by Crown Prince Hyomyeong to commemorate Queen Sunwon's birthday. The dance is said to be inspired by the clear voice of an oriole singing on a willow branch. Chunaengmu is a form of dance performed in a highly restrained manner, by a single artist, at court banquets. The performance takes place on a Korean traditional floor mat called

hwamunseok spread on the ground, and the dance is characterized by its barely perceptible slow movements. Scene 1 explores Chunaengmu as the epitome of court and solo dances and elevates it into a large-formation group dance. Scene 2 reinterprets traditional choreography through contemporary music, featuring dynamic movements and changes in formation.

ACT 3

죽무竹舞

JUKMU

1장 죽무

Scene 1 : Jukmu

추운 겨울에도 푸른 잎을 간직하는 대나무는 성실함, 충실함, 충성심을 상징한다. 죽무는 수많은 대나무 속에서 전통일무와 궁중무에 이어 신일무를 연결하는 정형성을 예비하는 장이다. 서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각자의 춤을 바탕으로 하나의 마음을 만드는 합일^合의 춤을 만들어낸다.

Boasting green leaves during the coldest of winters, bamboo trees symbolize integrity, fidelity, and loyalty. Jukmu is a male group dance performed using long poles amidst numerous bamboo installations. This act, which bridges previous studies about "Ilmu", "Gungjungmu" and the final act Sin-Ilmu(New Ilmu), prepares audiences for an alternate sense of formality presented in Sin-Ilmu. As a dance of unity, it showcases individual dancers executing distinct yet harmonious movements that contribute to a cohesive overarching theme. This original performance demonstrates exquisite regimentation and masculine strength.

ACT 4

신일무新俗舞 SIN-ILMU (NEW ILMU)

1장 신전통 I

2장 신전통 II

Scene 1 : The Neo Tradition I

Scene 2 : The Neo Tradition II

안무는 물론 음악·무대·의상 등 일무가 가진 의미와 미학을 새롭게 재해석 함으로서, 이 시대를 대변하는 현대적 언어의 새로운 창작일무 '신일무'를 선보인다.

Act 4 presents Sin-Ilmu, an original dance that reimagines the aesthetics and significance of the traditional choreography, music, stage design, and costumes of "Ilmu" using a contemporary approach.

단원 Danc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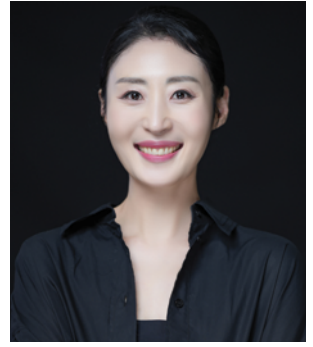
박수진 SOOJIN PARK



최주희 JOO HEE CHOI



홍연지 YEON JI HONG



김경애 KYOUNG AE KIM



김하연 HA YEON KIM



이로운 ROUN LEE



이진영 JIN YOUNG LEE



이선희 SUNHEE 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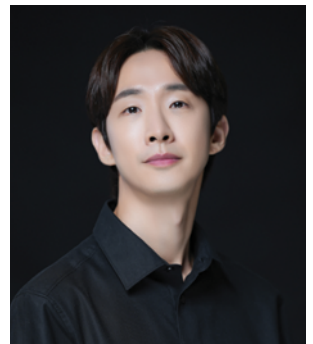
제갈숙영 SOOK YOUNG JEGAL



박수정 SUJOUNG PARK



최태헌 TAEHUN CHOI



유재성 JAESEUNG YOO



고우리 WOO RI KO



윤서희 SEOHEE YOUN



오정윤 JEONGYUN OH



박정훈 JUNGHOON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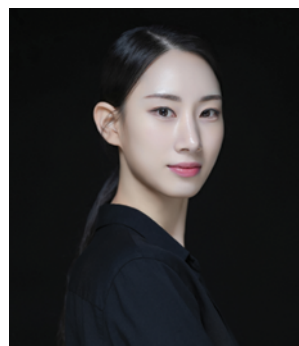
김민지 MIN JI KIM



한지향 JIHYANG HAN



노연택 YEONTAEK NOH



김은경 EUNKYUNG KIM



김서현 SEOHYEON KIM



강범석 BEOM SEOK KANG



박희주 HEE JU PARK



김건우 GUNWOO KIM

객원 단원 Guest Danc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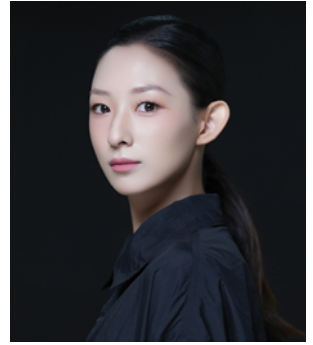
권도현 DO HYUN KWON



김나은 NA EUN KIM



김민선 MINSEON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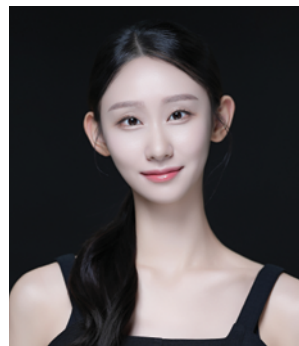
김수빈 SOO BIN KIM



김시백 SIBAEK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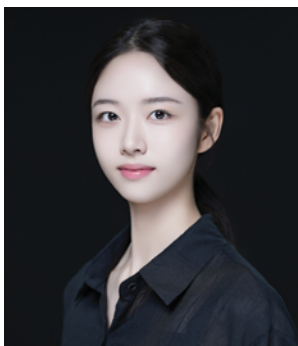
김영필 YOUNG PIL KIM



류다영 DA YOUNG RYU



류지운 JIUN RYU



박기윤 GI YUN PARK



박수현 SUHYUN PARK



박슬중 SEUL JONG PARK



박정은 JEONG EUN PARK



성지윤 JIYUN S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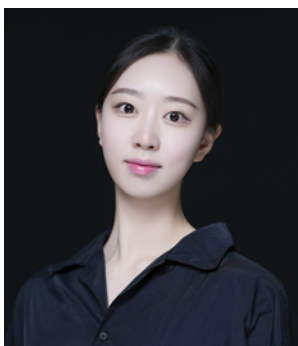
신한서 HAN SEO SH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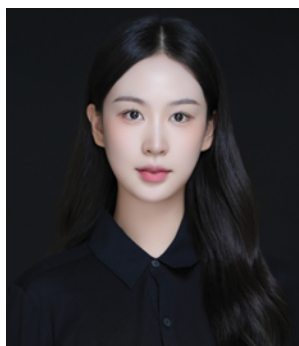
육지현 JI HYUN YUK



이규원 GYUWON LEE



이수빈 SOO BIN LEE



이예도 YE DO LEE



이한비 HAN BI LEE



장지수 JI SU JANG



전미나 MINA CHUN



최시우 SIWOO CHOI



최율리 YOULRI CHOI



한 별 BYEOL HAN



허윤서 YOON SEO HEO

* 가나다 순

제작

연출 정구호

안무 정혜진, 김성훈, 김재덕

음악 김재덕

지도 전진희, 한수문

무대·의상·장신구·소품·조명·영상디자인 정구호

영상제작감독 김장연

의상·장신구·소품 제작감독 이시내

무대감독 이민재

무대크루 허한중, 강대성, 오창우, 문승환, 김지호, 이성은,
오민석, 정윤희, 정동균, 이준혁, 조영민

조명감독 김정태

조명프로그램머 이형진

조명크루 권하준, 김동현, 전규상, 이서호, 손승우, 정지우,
심준석, 양가영, 박진희, 이해영, 고두영, 한지완

음향감독 채소영

음향크루 주정빈, 유성식

영상오퍼 김정민

의상·소품감독 변미라, 천지연

의상·소품진행 황창숙, 백송희, 박규민, 김병선, 김규림

무대제작 (주)두리무대

특수효과 (주)시너지이펙트

무대전식 이화테크

소품제작 (주)고려국악사

분 장 온스테이지

디자인 SCBE GRAFIK

홍보사진 스튜디오오프비트, 김신애 스튜디오

공연 사진 윤문성, 황필주

프로필사진 옥상훈

홍보영상 더즐더즐 필름, 농크 필름

공연영상 연두픽쳐스

기획·제작 (재)세종문화회관

세종문화회관

사장 안호상

공연예술본부장 문경아

공연제작1팀

팀장 구자윤

권진철, 박향미, 김 민, 최성신, 박지환, 조휘영,
문혜리, 배영주, 신동준, 박선미

공연DX팀

팀장 김여향

강봉진, 조계성, 배유진, 하수정, 유정아, 류다혜,
박세현, 진푸름, 서경은

공연장운영팀

팀장 한성국

전윤선, 최병훈, 이정연, 임아라, 강민재, 강민선,
김지성, 차주윤, 최민주, 김지연, 유혜리, 이보람

무대기술팀

팀장 김수현

책임안전관리자 이종덕

무대감독 이민재, 유병근, 이기훈, 장연희, 정보배, 김동현,
김동균, 이 준, 주무형, 전새미, 송은지

무대기계 안종철, 김상두, 김 정, 서민원, 박정길, 전해연,
이민우, 유지수, 서동진

음 향 김우람, 조영진, 이효원, 강병권, 채소영, 남윤수,
김경민, 김단경, 박창순, 최은식

조 명 노준식, 김학철, 조현권, 김 권, 설정식, 김정태,
양용환, 변호연

영 상 배준호, 한완주, 장인표, 류병현

의상소품 변미라, 천지연, 곽내영

행 정 양준혁

커뮤니케이션팀

팀장 이승미

김석경, 윤문성, 신대섭, 손귀영, 한채현, 이재효